

과거에 사로잡혀 시달리는 (형제들).
창세기 42:1 – 43:34

과거의 사건들이 다시 돌아와 우리를 사로잡아 괴롭히곤 합니다. 저는 이곳 Sanctuary 예배당에 계신 또는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어른들 중 과거로 돌아가 하나라도 그 일을 바꾸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한 것, 했던 행동, 아니면 하지 못했던 행동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무언가 훔치거나, 또는 정말 바보 같은 일들을 저지르고, 우리가 그것을 되돌리기를 바랍니다. 골프에서, 멀리건을 친다고 이야기하는 데, 기본적으로 그건 나쁜 샷을 (벌타 없이) 다시 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때, 대부분은 우리가 한두 번쯤 멀리건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다른 친구들을 밀치고 다녔습니다. 저는 농구팀의 공동 주장이었고, 큰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 강해서 우리 농장에서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만하게 우리 반 아이들을 먼지와 같이 여겼습니다. – 저는 진짜 머저리였습니다. 저는 그 시절의 제 삶을 “지우기” 버튼을 눌러 지워버릴 수 있다면 그러길 바랍니다. 여기에 공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깊이 그 경험을 물어버리고 싶은 간에, 그 일들이 놀랍게도 다시금 생각나서, 고통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커플들, 가족들, 친구들,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의 행동이 다시 돌아와 현재를 망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정당화하려고 노력했던 오래전 과거의 일들이 관계를 망가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면서 위협으로부터 후퇴하도록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죄나 고통을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미래에 오래도록 괴롭힐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요셉 이야기 속 본문이 그 현실을 잘 나타내 줍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 경험을 살펴보고, 지난 세 주일은 요셉의 형들이 그를 애굽에서 노예로 팔아넘긴 후 그의 삶에서 일어난 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놀라운 상황들을 통해 요셉은 바로 왕의 지하 감옥 깊은 곳에서 나와 온 땅을 다스리는 그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임명되었을 때 겨우 30세였던 그는 그 후 7년 동안 바로 왕의 꿈에서 예견한 7년간의 기근을 위해 곡식을 비축했습니다. 7년 풍년이 끝나자 요셉이 말했던 대로 기근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권위의 지위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의 위치였습니다. 7년간의 예언된 기근이 닥치자, 요셉은 이집트 내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창41:57]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리고 그것이 거의 일어날 수 없었던 가족의 재회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 매우 불쾌하고 폭력적일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약간의 셈을 해 보자면 이때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뒤 약 22년이 지난 때쯤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에 따르면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지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첫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 뜻은, “잊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혼잣말로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아버지의 집을 잊게 하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과거를 놓아준 것은 그의 성숙함을 나타내지만, 가끔 인생은 때때로 변화구를 던집니다. 22년이 지나, 그의 형제들을 직면하게 될 상황입니다.

그건 곰곰이 생각해 보기에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요셉은 22년간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22년간 노예로 팔려간 후에 그의 동생이 어떻게 지냈을지 궁금해하면서 보냈습니다. 아마 그 생각을 자주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때때로, 자신들이 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던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22년 동안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형들을 보고 오라고 보내지 말았을걸.. 합니다. 후회는 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가족 중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역사에서 ‘되감기’ 버튼을 누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39-41 장에서 요셉의 모습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지만, 42장, 43장에서는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챕터들이 길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핵심 인물에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기 그들의 혈육을 노예로 팔아버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10형제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부모로서의 실패를 깨닫지 못하고 후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희망, 즉 오래 잃어버린 형제, 요셉이 화해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으로, 구속적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 즉각적으로 이 가족의 역기능이 명백해집니다.

[창42:1-2]

- 1 그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 2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질문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걸 말해 주지 않습니까? – 존중하지 않고, 마치 그들이 바보들인 것처럼, 혹은 그가 지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가를 이룬 어른들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에게 지배당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행동에 마비된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 가족 역학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게 되고, 새로운 행동 방침을 제안하며, 아버지의 권위에 의문을 표하게 됩니다. 이 일은 훨씬 일찍 일어났어야 했던 일이지만,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 늦는 것이 낫습니다.

늙은이의 자녀교육에 관한 짧은 조언입니다. – 좋은 부모는 성인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들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 자기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 부모는 놓아 주기 힘들어하고, 때로 아이들이 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한 30대 자녀 세명이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가족 간에 때로는 부모가 거절당한다고 느끼고, 자녀들은 숨 막힌다고 느낄 때 어려운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지혜와 인내로, 가족은 부모와 성인 자녀들 간의 관계의 출렁이는 바다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역학이 야곱의 가족에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차별화의 갈등 속에 있는 분들께 (그분이 부모이든 아니면 성인 자녀이든지) 드리고 싶은 격려의 말은,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일을 먼저 겪은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놀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모든 형제들 – 베냐민을 제외하고, 그는 이제 요셉이 사라지고 나서 가장 총애하는 아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은 곡물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요셉을 22년 만에 처음 조우하게 되는 장소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꿈속에서라도, 그들의 노예로 팔려간 동생이 이집트의 총독이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절합니다. 흠.. 전에 본 것과 같은 장면이네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십 대 시절의 영광스러운 꿈을 떠올리지만,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숨깁니다. 여러분이 그 순간에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만남으로 –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이 빠르게 되살아납니다. - 죽음의 가능성에 대한 공포, 아무도 모르고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나라로 끌려가고, 노예 취급을 받고, 수년간 감옥에 갇히고, 거부당하고 잊혀진 모든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고통을 일으킨 사람들과 함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해에 대한 갈망과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 사이의 내적 싸움은 요셉에게 치열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요셉은 매우 흥미로운 행동을 합니다. – 떨어져 있는 세월 동안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능해 볼 시간을 갖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그들을 즉시 용서하지 않고, 또 바로 응징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그 형제들의 진실된 성품을 알기 위해 정교한 시험을 고안합니다.

[창 42:9-11]

- 9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꾀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 10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 11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자, 그 대답은 요셉이 열이 오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라고? 그래 그들은 그 형제를 노예로 팔고, 그 옷을 염소 피에 담그고, 아버지에게 야생동물에게 죽임당했다고 말했었는데. 순진한(정직한) 백성이라구요? 창세기 34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린 것을요.

그들은 첩자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 말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숨이 막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2 절에서

[창42:12-17]

12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13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14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15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16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17 그들을 다 함께 삼 일을 가두었더라

이러한 행동의 과정에서 보이는 지혜는 놀랍습니다. 때때로, 저는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재빨리 용서하고, 그 결과 또 다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냥 용서하고 잊으라고 말합니다. "그냥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깊은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과거의 아픔을 적절하게 다루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괴로움과 원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은 요셉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났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그는 형제들에게 약간의 짓궂은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그들이 했던 것과 비슷한 정도의 약을 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이 수년간 감옥에 갇히도록 만들었습니다. "며칠간이라도 포로로 끌려가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게 하자". 저는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께 올바른 일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형들을 용서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을 괴롭혔을까?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 회개했는가?" 그의 행동이 우리에게는 다소 가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들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치유에 필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 기도하고, 상담을 받고, 가까운 동료들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삼일 후에, 요셉은 그의 계획을 바꾸어 시므온을 제외한 모두를 풀어주고, 그들이 곡물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막넛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들이

베냐민과 돌아오면, 그들의 정직함이 증명되고, 그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의 시험은 그들을 칼같이 베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은 속이 뒤틀리는 것 같습니다.

[창42:21-24]

- 21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 22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 23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 24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형제들이 그 동생을 버린 날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그들이 그들의 이 냉혹한 죄를 인정한 적 있었던가요? 누르고 깊이 숨겨져서 그들의 마음으로 가로막고 있던, 이제 그들의 죄의 꾀뚫는 빛이 그들의 가슴에 타는 구멍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입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그들 모두의 심정을 "이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느니라"라고 통명스럽게 직언하였습니다. 와우! 요셉의 형들은 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어떻게 침묵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들의 영혼 속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동정심을 느꼈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죠. 그는 방을 나갔습니다; 그것이 그가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시험은 계속될 것이고, 그들의 죄책감은 더욱 심해질 뿐일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지고, 그들의 돈은 비밀리에 곡식 자루 위에 넣어 돌려줍니다. 이 예상치 못한 횡재는 축하로 이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창42:28]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것이 바로 해결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우리 삶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우리를 갇아먹는다는 것을 압니다 – 죄책감, 수치심, 우리가 한 일에 대해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은 종종 고통스러운 영적, 감정적, 관계적, 심지어 신체적 영향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까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민수기 32:23b)고 말합니다. 이 형제들은 그 쓴 단어의 모든 의미에서 불타는 듯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다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은 우리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이러한 내적 혼란 상태에서 그들은 시므온을 놔두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반응은 끔찍한 양육의 또 다른 예입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그는 자신의 상실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42:36]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게 화가 있도다. 내 삶이 끔찍하지 않은가? 다 너희 잘못이야." 저는 야곱에게 동정심을 느끼지만, 신앙으로 행동하여 그의 아들들에게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줄 때가 있다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제안했듯이,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람이 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첫 번째 표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르우벤은 시므온을 버리지 않고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창42:37]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여러분은 르우벤이 그의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구해주기를 원했던 인물이지만 나중에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던 사람이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장에서 그의 이전 발언을 통해, 그가 과거의 행동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효과로, 르우벤이 "아빠, 그만하세요. 우리는 시므온을 그렇게 버려둘 수 없어요. 뭔가 해야 돼요.. 제가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그러나 야곱은 과거의 후회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듣기를 거부하고 꿈쩍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창42:38]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잠시 그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야곱의 양육 방식만큼이나 나쁩니다. 좋아하는 아들을 사용합니다. - "내 아들은 너와 함께 내려가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의 형제가 죽었고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들 아홉 명이 그의 앞에 서 있고, 한 명은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는 그들에게 베냐민이 유일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감각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사랑하십시오 - 그들을 함께 끌어당기십시오.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당신을 불러서 시키시는 일을 하십시오. 친구 여러분, 과거의 경험에 대한 후회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히 위험을 감수하는 신앙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또 다른 형제 한 사람이 자기주장을 할 용기를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43장은 가족이 다시 한번 굶주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의 계획은 그저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내어 더 많은 곡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냐민이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나 유다는 그 계획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목할 만한데,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변화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이 시점까지 유다는 다소 비열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37장에서는 요셉을 노예로 팔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고, 38장에는 유다가 죽은 아들의 아내와 동침하는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3장에서, 유다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는 나서서 그의 아버지에 도전합니다.

[창43:8-9]

8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10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나는 유다의 그 마지막 문장을 좋아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꾸물거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애굽에 두 번은 갔다 왔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친 후 그를 조종하려고 했을 때처럼, 그는 애굽인들에게 선물을 보냄으로써 그들을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창43:11-14]

11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송아이니라

12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13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몇몇 절에 나온 야곱의 약삭빠른 인성과 잘못된 자녀 양육에 관해서는 책으로 쓰일 정도일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너무 날것이고 절제되지 않아서 – 아무것도 미화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한 줄이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길 원하노라.” “내 아들”이나 “시므온”이 아니라 (그도 이름이 있습니다), “너희 다른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방식은 마치 야곱은 시므온과 남남인 것 같이 들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면서 후회에 갇힐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상실과 슬픔에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면으로 비틀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관한 것으로 만듭니다. 이 장에 나오는 야곱의 마지막 말, [창43:14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눅었습니다 - 그는 오래 살았습니다 - 그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주들에 대한 관심을 보일 때가 된 지 훨씬 지났습니다. 그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 안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지 바라보아야 (구상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누군가는 후회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 아마도 그것은 생각 없는 행동, 말, 잘못된 결정, 감수하지 않은 위험, 또는 현명한 조언을 거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반항의 명백한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쌓인 경험의 축적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세요 - 우리는 후회의 땅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야기는 애굽에 있는 베냐민을 포함한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서는 것으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저는 요셉의 마음이 동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는 이들이 변화된 사람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종들에게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있었으며, 곡식 자루에 돌려준 돈에 대한 처벌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걱정스럽게 설명했고, 그의 대답은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창43:23]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이 이집트 청지기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는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때 혼란스러워했다면, 그럼 우리는 그들이 그 후 식사 중에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도 그들을 극진히 대했습니다. 야곱은 선물을 받은 후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고, 그들은 야곱이 건강하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 형제, 같은 어머니의 아들인 베냐민이 보였을 때, 그의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본문은 [창43:30]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라고 합니다.

스물 두해 동안 쌓인 고통과 상실감이 요셉으로부터 새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형제들에게 돌아왔을 때,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중 이 장은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창43:33-34]

33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34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분명 그들은 놀랐을 것이고,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이런 관대한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을 했나?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 요셉과 그의 형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모형 또는 모범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 그는 완전하지 않았고, 그의 형제들의 죄를 씻을 수 없었지만, 그는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예수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그는 그들을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 만약 그가 원했다면 그들에게 즉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는 그들에게 은혜를 보이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요셉의 형들처럼, 여러분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 모두가 예수의 가족이 되기를 - 즉 주의 형제와 자매가 되기를 - 원하신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에서, 요한의 복음에서 말하길,

[요1:10-13]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친구여, 여러분은 요셉의 형들처럼 죄책감과 수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야곱과 같이 과거의 후회에 갇혀, 속으로 뒤틀려서, 과거 경험을 슬퍼하며, 남 탓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깊이 고통받고 있었다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을 사로잡아 괴롭히거나 규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경험하여 -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과거 죄를 인식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고등학교 때 머저리였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내 삶을 그리스도께 드린 후, 나는 내가 괴롭혔던 몇몇 녀석들을 찾아보고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다르게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 우리는 그저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묵상 질문

1. 여러분을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이나 후회 속에 살도록 하는 과거의 죄나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들을 예수께 기꺼이 나아와 내려놓고, 그분의 사랑, 은혜, 그리고 자유를 경험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준비가 되셨나요?

2. 여러분의 관계 안에, 여러분은 재회, 용서, 그리고 신뢰의 회복의 대가를 감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 바뀐 마음을 나타내시겠습니까?